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 가져... 개막작 라두 주데 감독 <콘티넨탈 '25> · 폐막작 김옥영 감독 <기계의 나라에서> 선정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지난 1일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따르면 4월 30일 개막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는 우범기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문석·문성경·전진수 프로그래머, 박태준 전주프로젝트 총괄 프로듀서, 올해의 프로그래머 이정현이 참석해 상영작과 프로그램 전반을 비롯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소개했다.

올해 개막작은 라두 주데 감독의 <콘티넨탈 '25>, 폐막작은 김옥영 감독의 <기계의 나라에서>가 각각 선정됐다.

문성경 프로그래머는 개막작과 관련해 “라두 주데 감독은 새로운 서사 형식을 추구하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을 멈추지 않는 영화를 만드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폐막작에 대해서는 “40여 년 동안 다큐멘터리 작가 생활을 했고, 1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김옥영 감독의 연출 데뷔작답게 이 영화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상에 접근하고 있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1일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고 말했다.

우범기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단순한 영화 축제를 넘어, 국제 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장이 됐다”며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치를 강조했다.

민성욱 공동집행위원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영화제를 준비

중이니, 전주에 오셔서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대안영화인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비쳤다.

/장은성 기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15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지역의 문화자원과 문화시설의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총 사업 규모는 1억6,200만원이다.

접수 기간은 3~15일까지며, 신청은 국가문화예술교육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시설은 e나라도움(예치형) 교부가 가능한 도내 문화시설이어야 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무배치 시설은 우대할 예정이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개 문화시설을 선정, 선정된 시설에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와 활용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설별로 2,700만원씩 균등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문화시설은 공개채용 원칙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자체적으

로 채용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국가공인 전문 인력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운영·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 사업을 통해 활동한 청년 문화예술교육사가 근무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고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공모는 문화예술교육사가 주체적으로 현장을 기획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험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19일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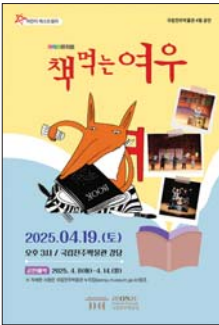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고취하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3시 박물관 강당에서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현대 어린이들이 책과 친근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책 먹는 여우’는 책을 좋아하는 여우가

책을 다 읽고 난 후 소금과 후추를 뿌려 맛있게 먹는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진 이야기로,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색다른 재미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작품은 어린이 권장도서로 선정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주니어김영사, 프란치스카 비어만)를 원작으로 어린이 독서 습관 형성 및 정서 발달에 기여하는 유익한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연은 전 연령이 관람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8일부터 가능하다. 관람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주박물관(063-220-1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제52회 춘향국악대전 참가자 신청 접수

남원시, 5개 부문 13개 종목

남원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52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참가자를 접수받는다.

경연은 5개 부문 13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판소리(명창부, 일반부, 초·중·고 청소년부, 신인 및 외국인부) △무용(일반부, 청소년부) △기악관악(일반부, 청소년부) △퓨전·창작국악 부문이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까지이며, 다만, 퓨전·창작국악은 온라인 사전 검토를 위해 4월 11일(금)에 접수를 마감하고, 우편, 직접방문, e-mail(nwgugak@naver.com)로 신청, 신청서 내려받기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

95회 춘향제 누리집 또는 남원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063-620-5136~7)

대전은 5월 2일(금)부터 5월 5일(월)까지로, 마지막 날인 5월 5일에는 일반부 본선 및 대통령상을 가리는 판소리 명창부 본선 경연이 진행된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0만원과 영예의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일반부의 판소리, 무용, 기악관악, 기악현악·병창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퓨전·창작국악 부문 대상 수상팀에게는 국회의장상이 수여되며, 판소리 고등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여성和曜간담회’ 운영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은 도내 여성 리더들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전북여성和曜간담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2008년 시작된 전북여성和曜간담회는 정치,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오피니언 리더 100여 명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여성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올해는 ‘도전과 혁신을 향한 여성의 힘!’으로,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저녁 7시 진행된다.

첫 일정으로 지난 1일 박자림 한국강사교육협회 이사가 ‘여성 리더가 알아야 할 Chat GPT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정정희 원장은 “다양한 체험형 워크숍을 통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도내 여성오피니언 리더들이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간담회와



함께 하며 역량을 키워 전북의 혁신과 도전에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총서 제16권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최근 연구총서 제16권 ‘조선환여승람에 실린 전북 한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고전 번역을 통해 인문학 발전을 선도해 온 한국고전학연구소가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전북 지역 유학자들의 한시를 선보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전인 ‘조선환여승람’은 일제가 1914년에 식민통치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자 공주의 유학자인 이병연이 전통적 읍지를 대체할 목적으로 전국 24개 군 중 129개 군의 인문 지리 현황을 직접 조사해 편찬한 책이다. ‘조선환여승람’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단절된 인문 지리서의 전통을 이

었으며,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지리와 역사, 인물을 담담히 밝혔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역사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한국고전학연구소장)와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병구 박사가 공역한 ‘조선환여승람에 실린 전북 한시’는 도내 13개 고을의 알려지지 않은 한시를 번역했으며, 초야에 묻힌 작가에 관한 정보를 찾아 소개했다. 다른 문헌이나 작자의 문집과 비교해 시의 제목을 추적했으며, 오탈자를 찾아 원문도 바로잡았다. 3년 간의 수정과 교정을 반복하며 최대한 많은 각주를 붙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